

OECD 개발원조위원회 (DAC) 정례회의

I. 회의개요

- OECD 개발원조위원회(DAC) 제938차 정례회의가 2011.11.3 OECD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, 부산총회 결과문서 토의, DAC개편방안, 2013~14년 DAC 프로그램 예산사업 협의절차, MOPAN 사무국 설치 합의 등 논의하였음.

II. 주요내용

- 위원회는 2015년까지 원조의 전면적 언타이트화, 투명성 이슈, 원조재원의 중기 예측성, 기후 변화의 개발맥락 검토 등을 논의하고 향후 동 논의 결과를 부산총회 결과문서 협상그룹 (Sherpas) 논의에 반영하기로 함.
- 위원회는 DAC 글로벌관계강화전략문서 [DCD/DAC(2011)36]를 채택
 - 동 글로벌 관계강화 전략문서는 ‘공여국과 수원국, 남남협력제공국가’를 통합한 구분방법 제시와 DAC에 대한 참여, DAC 가입심사 문서 개정 관련 내용이 포함됨.
- DAC 개편방안에 대한 문서 일부분을 유보하여 채택
 - 금번 정례회의에서 ‘부산총회 후속체제(Post-Busan)’ 이행을 위한 조치로 DAC 산하조직인 원조효과작업반(WP-EFF)의 맨데이트 연장 방안이 DAC의장에 의해 제시된 바, 이에 대한 최종결론은 부산총회 직후인 12.14 DAC정례회의서 정하기로 함.
 - 다수의 회원국이 부산총회에서 새로운 글로벌 개발추진체제 방향이 확정되게 되면 보다 구체적인 맨데이트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지지, 또한 원조효과작업반의 맨데이트 연장 관련 부분을 제외한 DAC 구조혁신 문서는 이견 없이 채택.
- DAC은 내년도 6월초까지 전체적인 2013~14년 DAC 예산안 규모 확정 등 개략적인 프로그램 예산사업(PWB) 협의절차에 관한 문서 [DCD/DAC(2011)39]를 채택함.
- 사무국은 다자기구평가네트워크(MOPAN) 활동의 시너지 제고와 다자기구 효과성 강화측면을 고려하여 MOPAN 사무국을 DAC에 설치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TOR을 오는 12말 까지 확정할 것.
- OECD 개발협력국장은 11월.7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개발전략 프렌즈그룹과 관련하여 ① DAC이 보유한 개발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발전략 수립과정에 반영할 것인가 ② 관련 OECD 위원회가 개발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DAC이 어떤 연계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DAC가 답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 언급함.

Ⅲ. 관찰 및 평가/건의

- 부산총회 결과문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한시적(1년 이내)으로 DAC 맨데이트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맨데이트의 내용, 연장기한 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중재안이 채택되어 12.14 DAC 정례회의에서 동 이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함.
- 금번 정례회의 후 DAC의장은 우리 측 DAC대표에서 부산총회 DAY 2(11.30) DAC의장 주최로 DAC 회원국 개발 장관 초청 조찬을 개최할 수 있도록 장소확보 지원 요청.